

# 천지인 삼재사상(三才思想)에서 인원(人元)에 관한 고찰 지장간(支藏干)의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강성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명리학 전공  
luceen502@daum.net

I. 머리말

II. 지장간의 형성과 이론적 배경

III. 지장간의 구성원리와 시간적 효용

IV. 맺음말

## I. 머리말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유체계에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상호 감응하며 우주자연의 생태질서가 형성된다는 삼재사상(三才思想)이 기층 사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삼재사상은 천지인(天地人)으로 구성되어 하늘을 천, 땅을 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인으로 나타낸다. 『주역』에서 팔괘가 삼변(三變)의 과정으로 천지인의 삼재를 이루고, 명리에서는 삼원론(三元論)으로 천원(天元)·지원(地元)·인원(人元)이 구성되어 삼원 중 인원을 지장간이라 한다.

지장간(支藏干)은 지지장간(地支藏干)·지지암장(地支暗藏)의 준말로 지지 가운데 천간(天干)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sup>1)</sup>, 천간의 천원, 지지의 지원과 함께 삼원론의 인원이 되며, 지장간이 월지(月支)에 있는 월률분야(月律分野)와 월지 외 지지에 있는 인원용사(人元用事)를 포함하는데, 12지장간 모두가 월률분야와 인원용사가 될 수 있다.

지장간에 대한 연구는 음양오행론을 설명하면서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수 있으나<sup>2)</sup>, 지장간을 주제로 한 연구는 최왕규의 「지장간 이론의 연원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와 2016년에 나온 주안나와 홍유선의 석사학위 논문 두 편<sup>3)</sup>이 있다. 지장간을 단편적으로 다룬 논문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장간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고, 최왕규는 지장간을 단일 논제로 심도 있게 천착한 가치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으나 지장간의 연원에만 치중하였다. 주안나는 지장간의 월률분야를 『자평진전』의 격국성립에 연관하여 기술했으며, 홍유선은 김광용의 일반서적<sup>4)</sup>을 교재로 하여

---

\* 이 글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행·십간·십이지와 도표의 특별한 경우는 한자를 노출하였다.

- 1) 김승동 편저, 『易思想辭典』(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1296쪽.
- 2) 신경수, 「당송대 명리학 三才論과 주체 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101-107쪽; 안재욱, 『명리학에 함축된 음양오행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42-46쪽;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116-129쪽; 김만태,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2013), 140쪽; 강성인,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제58집(2015), 159쪽.
- 3) 주안나, 「지장간 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홍유선, 「십이지의 지장간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6).
- 4) 김광용, 『자운의 지장간 이야기』(자운명리출판사, 2014).

지장간의 개념을 서술하였다. 지금까지 지장간의 구성원리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하다.

지장간은 벽돌에 비유하면 벽돌을 구성하는 모래·시멘트·물과 같은데, 모래·시멘트·물은 언제·왜·어떻게 벽돌의 구성물이 되었으며, 각각의 성분은 무엇이며 배합비율은 어떠한가?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지장간 이론의 배경과 구성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주생성과정에서 “가볍고 맑은 기는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된다(輕清爲天, 重濁爲地)”<sup>5)6)</sup>라고 하는 ‘천경지중설(天輕地重說)’을 이 글에서 신설하여 도입하고, ‘십이운성법설(十二運星法說)’·‘토왕사계설(土旺四季說)’·‘삼재설(三才說)’·‘천문설(天文說)’을 기술하겠다. 그리고 지장간 이론의 형성을 탐색하기 위한 문헌으로는 지장간 이론이 내재되어 있는 『옥조신응진경(玉照神應眞經)』·『낙록자삼명소식부주(洛球子三命消息賦注)』·『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연해자평(淵海子平)』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삼명통회(三命通會)』·『명리정종(命理正宗)』·『자평진전(子平眞銓)』·『명리약언(命理約言)』·『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 등을 참고하겠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각 문헌에 따라 상이한 지장간 이론의 구성원리를 본질적으로 규명하고 지장간 이론의 시간적 효용을 밝혀서 삼재사상(三才思想)과 술수문화의 학술적 이해를 넓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II. 지장간의 형성과 이론적 배경

### 1. 지장간의 형성과정

삼재사상의 인원에 대하여 고법사주와 신법사주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고법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허중(李虛中, 9세기 초)의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에서는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인원이라 하였으나<sup>7)</sup>, 서자평

5) 『淮南子』 「天文訓」. “清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凝滯而爲地.”

6)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論五行所生之始」. “輕清爲天, 重濁爲地, 二氣相成, 兩儀既生, 化而成天.”

7) 李虛中 注, 『李虛中命書』(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卷中. “干爲天元祿, [...] 支爲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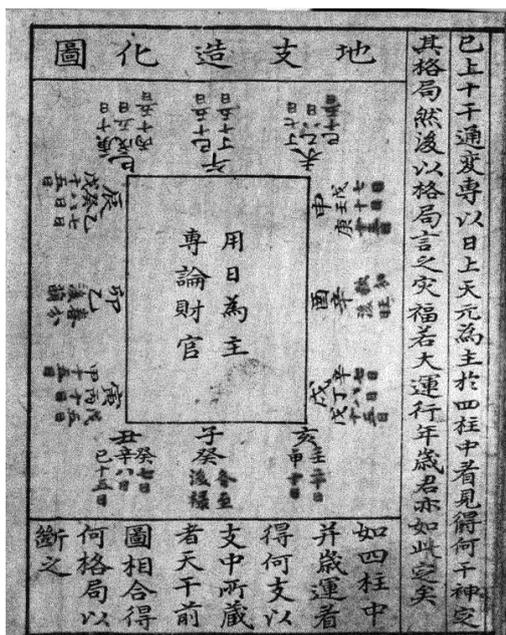


그림1-「지지조화도」

자평이 주석한 『낙록자삼명소식부주』에서 “辰 중의 乙木이 있는데, 이는 춘목의 여기이다(辰中有乙, 是春木之餘氣)”라고 土를 설명하면서 처음 언급한다. 그 이후 남송(南宋)의 서대승(徐大升)이 저술한 『자평삼명통변연원』 「지지조화도(地支造化圖)」에서 십이지지(十二地支)에 지장간을 배속하여 그림1과 같이 표시하였으며, 이어서 『연해자평』에서 「우지지장둔가(又地支藏遁歌)」<sup>10)</sup> · 「논천지간지암장총결(論天地干支暗藏總訣)」<sup>11)</sup> 과 더불어 「오행발용정례(五行發用定例)」에 표1과 같은 ‘월률분야지도(月律分野之圖)」로 지장간 이론을 수록하였다.

元命, [···] 納音爲人元身.”

- 8) 徐子平 撰, 『珞琮子三命消息賦注』(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卷上. “年月日時上天元也, 支內人元也.”
- 9) 김만대, 「사시·월령의 명리학적 수용에 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2014), 106쪽.
- 10) 徐升 編著, 앞의 책, 「又地支藏遁歌」. “子宮癸水在其中, 丑宮辛金己土同, 寅宮甲木兼丙戊, 卯宮乙木獨相逢, 辰藏乙戊三分癸, 巳中庚金丙戊叢, 午宮丁火并己土, 未宮乙己丁共宗, 申位庚金壬水戊, 酉宮辛金獨豐隆, 戌宮辛金及丁戊, 亥藏壬甲是真蹤.”
- 11) 위의 책, 「論天地干支暗藏總訣」. “立春念三丙火用, 餘日甲木旺提綱, [···] 小暑十日丁火旺, 後來三日乙木芳, 己土三日威風盛.”

표1-『연해자평』 ‘월률분야지도’

四月중려(仲呂) 巳 戊 五日一分半 庚 九日三分 丙 十六日五分	五月유빈(蕤賓) 午 丙 十日三分半 己 九日二分半 丁 十日三分半	六月임중(林鐘) 未 丁 九日三分 乙 三日二分 己 十八日六分	七月이척(夷則) 申 己 七日一分半 戊 三日一分半 壬 三日一分半 庚 十七日六分
三月고선(姑洗) 辰 乙 九日三分 癸 三日一分 戊 十八日六分	月 野 律 之 分 圖		八月남려(南呂) 酉 庚 十日五分半 丁己長生 辛 二十日七分半
二月협중(夾鐘) 卯 甲 十日五分半 癸長生 乙 二十日六分半			九月무역(無射) 戌 辛 九日三分 丁 三日二分 戊 十八日六分
正月태주(太簇) 寅 戊 七日二分 丙 七日二分半 甲 十六日三分半	十二月대려(大呂) 丑 癸 九日三分 辛 三日一分 己 十八日六分	十一月황중(黃鐘) 子 壬水 十日五分 辛長生 癸 二十日七分	十月응중(應鐘) 亥 戊 七日二分半 甲 五日分半 壬 十八日六分

그러나 『옥조신응진경』은 『사고전서제요(四庫全書提要)』에서 괘박의 이름을 가탁(假託)한 위서라고 한다.<sup>12)</sup> 그러면 서자평이 주석한 『낙록자삼명소식부주』가 지장간 이론을 설명한 최초의 문헌이 되고, 서대승의 『자평삼명통변연원』 「지지조화도」를 거쳐, 서승의 『연해자평』에서 지장간 이론이 전반적으로 기술된다.

서대승의 『자평삼명통변연원』 「지지조화도」에 지장간 배속을 도표로 표시하면서 亥水의 지장간에서 戊土를 제외하고 亥水에 甲木과 壬水만

12) 『玉照神應眞經』은 東晉 郭璞의 저술로 알려져 있으나, 『四庫全書』에서는 괘박에 가탁한 위서라고 하였다(鄒文耀 撰, 『命學尋眞』, 台北: 集文書局, 1982) 252쪽. “사고전서제요에 옥조정진경이 괘박을 탁명한 위서라고 정하였다면, 옥조신응진경은 당연히 위서이다(四庫全書提要既考定玉照定眞經爲託名于郭璞之僞書, 則此玉照神應眞經當然亦是僞書).”; 陸致極, 『中國命理學史論』(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85-86쪽 참조.

표2- 「지지조화도」의 지장간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지장간	癸30	癸7 辛8 己15	戊5 丙10 甲15	乙30	乙7 癸8 戊15	庚10 戊5 丙15	己15 丁15	丁7 乙8 己15	戊7 壬10 庚13	辛30	辛7 丁8 戊15	壬20 甲10

표시하였다. 『연해자평』 「우지지장둔가」에도 亥에는 「지지조화도」와 같이 戊土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화토동궁설(火土同宮說)을 따른 연유라고 생각된다. 『자평삼명통변연원』의 「지지조화도」에서 십이지지에 지장간을 처음 배속하여 표기했는데 정리하면 표2와 같다.

사맹(四孟)에서 亥에 戊土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고, 巳와 亥에서 지장간 순서가 庚·戊·丙과 壬·甲으로 되어 있는데, 巳에는 戊土가 辰土의 여기를 받아 당연히 庚金보다 먼저 사령해야 하고, 亥에는 본기인 壬水가 甲木 뒤에 사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순서가 바뀐 것은 아마도 순서에 관계하지 않고 생궁(生宮)과 녹궁(祿宮)으로 배열했거나, 지장간 배속이 처음 기술되어 오류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중(四仲)에서는 子·卯·酉는 癸·乙·辛 본기만 배정하고 午에는 화토동궁설을 적용하여 己·丁을 배정하였다. 사계(四季)에서는 타 문헌과 동일하게 여기(餘氣)·중기(中氣)·본기(本氣)를 배정하였다.

『삼명통회』 「논인원사사(論人元司事)」에서 지장간의 배정일수를 설명하면서 “甲丙庚壬과 乙丁辛癸에 각 35일을 배정하고, 戊己에 각 50일을 배정하면 합계 360일이 된다”<sup>13)</sup>라고 지장간을 설명하고, 『명리정중』의 「지지조화지도」에서는 지장간을 설명하면서 사맹에 戊土를 배정하였으나, 「총영(總詠)」의 ‘십이지중소장법(十二支中所藏法)」에서는 『연해자평』의 「우지지장둔가」와 동일하게 亥水에 戊土를 배제하였다.<sup>14)</sup>

『자평진전』 「지장인원사령도표(支藏人元司令圖表)」에서 ‘지장인원도(支藏人元圖)」를 그려서 지장간을 기술하면서, 도표에는 亥에 戊土를 배정하지 않았는데, 문장에서는 亥月에 입동 후 7일을 戊土에 배정하여 지장간을 각각 생(生)·녹(祿)·묘(墓)로 표시하였다.

13) 萬民英 著, 『三命通會』(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論人元司事」. “以甲丙庚壬各三十五日, 乙丁辛癸各三十五日, 戊己各五十日, 共計三百六十日.”

14) 張楠, 『標點命理正宗』(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地支造化圖」. “子藏癸水是祿位, [...] 亥藏壬甲二天干.”

서자평에 이르러 12지지의 지장간 구성요소와 월별 지장간 관장일수, 그리고 월률분야 등의 지장간 이론이 성립하게 되었는데<sup>15)</sup> 서자평이 주석한 『낙록자삼명소식부주』에서 최초로 지장간 이론이 기술되고, 서대승의 『자평삼명통변연원』을 거쳐, 서승의 『연해자평』에서 지장간 이론이 심화되어, 이후 명대 『삼명통회』·『명리정중』에 이어 청대 『명리약언』·『자평진전』·『적천수천미』 등에 지장간 이론이 중요하게 기술됨으로써, 지장간 이론은 신법사주에서 삼재사상의 표현이 되었다.

## 2.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

음양이 구별되기 전에 맑고 가벼운 기는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되었다는 기론적(氣論的) 사유에 근거한 우주생성과정의 ‘천경지중설’을 신설하여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하고, 더불어 ‘십이운성법설’·‘도왕사계설’·‘삼재론설’·‘천문설’ 등을 이론적 배경으로 기술하였다.

### 1) 천경지중설(天輕地重說)

『회남자(淮南子)』 「천문훈(天文訓)」에서 천지(天地)의 생성과정을 기론(氣論)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하늘과 땅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지럽게 뒤엉킨 기운만 무성할 뿐 아무런 형상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때를 태소라고 한다. 도로부터 허확을 낳고 허확은 우주를 낳으며 우주는 기를 생한다. 기에는 구별이 있어서 맑고 밝은 기는 얇게 퍼져 하늘이 되었고, 탁하고 무거운 기는 응고되어 땅이 되었다. 맑은 기는 합하기가 쉽고 무겁고 탁한 기는 응고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늘이 먼저 만들어지고 땅은 나중에 정해졌다.<sup>16)</sup>

천지의 생성과정 중 맑고 가벼운 기는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기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연해자평』 「논오행소생지시(論五行所生之始)」에서 “가볍고 맑은 기는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는 땅이

15) 최왕규, 「지장간 이론의 연원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34쪽.

16) 『淮南子』 「天文訓」. “天墜未形, 馮馮翼翼, 洞洞瀾瀾, 故曰太昭. 道始生虛鄴, 虛鄴生宇宙, 宇宙生氣. 氣有涯垠, 清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凝滯而爲地. 清妙之合專易, 重濁之凝竭難, 故天先成而地後定.”

되어, 천지가 이루어지면서 음양(陰陽)이 생겨 우주가 만들어졌다(輕清爲天, 重濁爲地, 二氣相成, 兩儀既生, 化而成天)”라고 우주의 생성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우주생성론에 근거하면 하늘(天)에 대응하는 것은 천간이고, 땅(地)에 대응하는 것은 지지가 된다. 천기(天氣)는 가볍고 맑기 때문에 천간의 부호는 순수한 하나이면서, 각자 하나의 천간은 단지 한 종류의 구체적인 오행의 내용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지는 무겁고 탁하기 때문에 지지의 부호가 함유하는 내용은 자연히 매우 복잡하다.

그러면 지지 속에는 어떠한 모습의 오행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각각 하나의 지지로 인하여 모두 1년 중의 어떤 한 달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연생태 양식에서 출발하면 각각 하나의 지지가 함유하고 있는 바의 각기 다른 오행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지지의 부호가 함유하는 복잡성을 『삼명통회』에서 지리에 비유하였다.<sup>17)</sup>

『삼명통회』 「십이지분배지리(十二支分配地理)」에서 지지를 지리에 배속하여 지리의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지지가 함축한 성질을 기술한다.

子是墨池(墨池)로 삼아 정북방에 위치하며 水에 속하고, [...] 午는 봉후(烽埃)로 삼아 남쪽에 자리하고 火와 土에 속하며, [...] 卯는 경림(瓊林)으로 삼아 卯는 乙木과 연관 지으며 정동에 위치하고, [...] 유는 사종(寺鐘)으로 삼아 酉는 金에 속하고 戌亥에 가까이 위치하며, 寅은 광곡(廣谷)으로 삼아 寅은 곧 간방(良方)이고 간은 산이니 戌土는 여기에서 장생하며, [...] 申은 명도(名都)로 삼아 坤(坤)은 땅이 되어 그 체가 무강하니 명도가 아니고서는 그것에 비유하기가 부족하고, 도(都)는 제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申에서 壬水가 생하며 간산(良山)과 대응하고, [...] 巳는 대역(大驛)으로 삼아, [...] 巳에는 丙火와 戌土가 있으며, [...] 亥는 현하(懸河)로 삼아, [...] 亥는 천문(天門)이니 水에 배속되고, [...] 辰은 초택(草澤)으로 삼아, [...] 水가 모이는 곳으로 辰은 동방에서 수고(水庫)가 되며, [...] 戌은 소원(燒原)으로 삼아 戌月은 구추(九秋)에 있고, [...] 丑은 유안(柳岸)으로 삼아 축중에는 水·土·金이 있으며, [...] 未는 화원(花園)으로 삼아, [...] 卯는 곧 木의 왕지(旺地)이고, [...] 未土는 곧 목고(木庫)이다.<sup>18)</sup>

17) 陸致極, 앞의 책, 151쪽.

18) 萬民英, 앞의 책, 「十二支分配地理」. “子爲墨池, 子在正北方, 屬水. [...] 午爲烽埃, 午正位於南, 屬火土. [...] 卯爲瓊林, 卯係乙木, 居位正東. [...] 酉爲寺鐘, 酉屬金, 位近戌亥. [...] 寅爲廣谷, 寅乃良方, 良爲山, 戌土長生於是. [...] 申爲名都, 坤爲地, 其體無彊, 非名都不足以喻之, 申坤也, 都者, 帝王所居, 申宮壬水生, 又與良山對. [...] 巳爲大驛, [...] 巳中有丙火戌土. [...] 亥爲懸河, [...] 亥即天門, 又屬水. [...] 辰爲草澤, [...] 水所鍾也, 辰在東方之次爲水庫. [...] 戌爲燒原, 戌月在九秋. [...] 丑爲柳岸, 丑中有水有土有金.

표3- 십이지분배지리표

지지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지리	묵지	유안	광곡	경림	초택	대역	봉후	화원	명도	사중	소원	현하
地理	墨池	柳岸	廣谷	瓊林	草澤	大驛	烽墩	花園	名都	寺鍾	燒原	顯河
지장	水	水土	戊	乙	水	丙戊	火土	木	壬	金	金	水
地臟		金										

표4- 월률분야지도의 지장간

正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月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戊 7 丙 7 甲 16	甲 10 乙 20	乙 9 癸 3 戊 18	戊 5 庚 9 丙 16	丙 10 己 10 丁 10	丁 9 乙 3 己 18	己 7 戊 3 壬 3 庚 17	庚 10 辛 20	辛 9 丁 3 戊 18	戊 7 甲 5 壬 18	壬 10 癸 20	癸 9 辛 3 己 18

지장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십이지분배지리」에 기술된 이치가 지장간 이론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십이지를 지리에 배속하면 표3과 같다.

지리는 다양한 물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상이니 지지의 중탁(重濁)한 기운이 다양한 기운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연해자평』 「월률분야지도」에서 지지가 한 달을 대응하면서 각각의 지지에 소장된 천간이 사령하는 일수를 표시하였다. 정리하면 표4와 같다.

각 지지에 소장된 오행 중 가장 많은 날을 주관하는 기가 본기(本氣)이다. 예를 들면, 寅月은 16일을 주관하는 甲木이 본기(正氣)가 되고, 戌土는 丑月의 여기(餘氣)이며 丙火는 중기(中氣)가 된다.

지지는 모두 각자 한 달씩을 주관하는데 중탁한 지지는 오로지 하나의 오행으로 진행(專行)할 수 없어, 예를 들어 寅月(正月)의 경우, 초반 7일은 戌土가 사령(司令)하고 그다음 7일은 丙火가 사령하며 나머지 16일은 인월의 본기가 되는 甲木이 사령한다는 것으로, 12지지 모두 12월에 배속되어 해당 월(月)에 연관된 지장간이 주관한다는 것이다.

우주생성과정의 천지의 형성에서 지장간 존재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지지가 함유하고 있는 복잡성을 지리에 비유한 『삼명통회』 「십이지분배

[...] 未爲花園, [...] 卯乃木旺, [...] 未乃木庫.”

지리」가 지장간 이론을 설명하는 데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한 지장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천경지중설’을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 2) 십이운성법설(十二運星法說)

지장간 이론은 지지삼합이나 십이운성법 등과 더불어 상호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십이운성법이나 지지삼합의 생(生)·왕(旺)·묘(墓)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장간의 원리가 만들어졌는지, 또는 지장간의 원리를 소개한 이후 십이운성법이나 지지삼합의 원리가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sup>19)</sup> 『회남자』에서 지지삼합이론이 처음 기술되면서 십이운성법이 표출되었는데<sup>20)</sup>, 십이운성법에서 오행본기(五行本氣)의 동기(同氣)가 소장된 곳은 생(生)·관(官)·왕(旺)·쇠(衰)·묘궁(墓宮)이며, 12지장간은 모두 해당지지가 생·관·왕·쇠·묘궁 중의 하나가 되어 십이운성법과 연관성이 제기된다.

장신지는 「자평학지이론연구(子平學之理論研究)」 ‘지지소장(地支所藏)’에서 지장간의 원리가 십이운성법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그것지장간은 마땅히 오행이 십이생사소를 주류하는 사교맥락에서 근원이 연관되고, 아울러 명학이론에서 특별히 중요시하는 ‘삼합국(三合局)’·‘삼회방(三會方)’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연원이 매우 깊다.<sup>21)</sup>

지장간이 십이운성법에서 연유하고, 아울러 십이운성법과 관련이 있는 지지삼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지지삼합의 생·왕·묘는 지장간의 골간이 된다.

## 3) 토왕사계설(土旺四季說)

『백호통의』 「오행」에서 “오행이 바뀌어가며 왕 노릇을 하더라도 반드시 토를 필요로 한다. 토가 사계절에 왕 노릇을 하고 중앙에 자리하므로

19) 신경수, 「唐·宋代 命理의 三才論과 주체관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32쪽.

20) 강성인·김만태 「음양오행론에서 『淮南子』와 『五行大義』의 위상과 상이점」, 『동양학』 제62집(2016), 165-166쪽 참조.

21) 張新智, 『子平學之理論研究』, 國立政治大學 박사학위논문(2002), 83쪽, ‘地支所藏’. “意其當係源自五行周流十二生死所的思考脈絡, 並與命學傳統中特重‘三合局’·‘三會方’之概念有密切關連, 淵源甚深.”

특정한 때에 이름 붙이지 않는다(故五行更王, 亦須土也, 王四季居中央不名時)”라고 토왕사계설을 기술하면서, “토가 사계절에서 각기 18일이 왕하다(土旺四季各十八日)”<sup>22)</sup>라고 토가 주관하는 일수를 기재하였다.

『백호통의』의 토왕사계설은 1년[360일 기준을 5행으로 나누면 각각 72일이 되어 토에 배정되는 72일을 4로 나누어 계절마다 18일씩을 배속하였다. 토왕사계설은 지장간 이론에서 辰·戌·丑·未 사계에 소장된 土의 배정 일수와 일치한다. 지장간 이론에서 辰·未·戌·丑 사계의 지장간 배정이 모두 토가 18일로 되어 있어, 토왕사계설의 土의 배정일수와 같다[예: 辰(乙9, 癸3, 戌18), 未(丁9, 乙3, 己18)……].<sup>23)</sup> 토왕사계설은 辰·戌·丑·未 사계에서 土의 배정일수에 이론적 배정의 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삼재론설(三才論說)

지장간은 신법사주 시기에 삼재론(三才論)의 삼원 중 인원으로 제시되었다. 고법사주에서의 삼원(年干: 천원·녹(祿), 年支: 지원·명(命), 年柱納音: 인원·신(身))과 다르게 천간을 천원, 지지를 지원, 지장간을 인원이라 하여 인(人)은 천지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였다.<sup>24)</sup> 지장간은 고법사주의 납음오행을 대신하는 신법사주의 인원으로 자리하여 신법사주의 삼재론을 이룩하였다.<sup>25)</sup>

서자평은 『명통부(明通賦)』에서 지장간의 인원을 삼재로 보고, 여기·중기·본기의 사령기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sup>26)</sup> 이후 지장간은 서대승이 고법사주의 납음오행을 대체하는 삼재사상으로 정립함으로써 자평사주의 핵심사상이 되었다.<sup>27)</sup>

『적천수천미』 「천도(天道)」에서 “삼원은 만법의 근본이니 이를 알고자

22) 班固 著,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五行」. “木旺所以七十二日何, 土旺四季各十八日, 合九十日爲一時, 王九十日, 土所以王四季何, 木非土不生, 火非土不榮, 金非土不成, 水非土不高, 土扶微助衰, 歷成其道, 故五行更王, 亦須土也, 王四季居中央不名.”

23) 강성인, 앞의 논문(2015), 157-159쪽 참조.

24) 陸致極, 앞의 책, 153쪽 참조.

25) 김만태, 앞의 논문(2014), 112쪽 참조.

26) 『明通賦』. “凡看命以日干爲主, 通三元而配合八字干支, [...] 支干有不見之形, 無中取有, 節期存有餘之數, 混處求分.”

27) 이명재,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 『중국학연구』 제66집(2013), 377쪽.

하면, 먼저 천간과 실려 있는 지장간과 더불어 지지의 공을 봐야 한다(欲識三元萬法宗, 先觀帝載與神功)”라고 지장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석에서 임철초가 삼재사상을 들어 설명한다.

임철초가 말하길, 천간은 천원이고, 지지는 지원이며, 지장간은 인원이다. 부여받은 명도 모두 고르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삼원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으니 이른바 만법의 근본이라 한다.<sup>28)</sup>

천간과 지지를 천원과 지원이라 하고 지장간을 인원이라 하면서 삼원인 만법의 근본이라 하였다. 『적친수친미』 「월령(月令)」에서 “월령은 제강의 곳간이니 비유하면 집이다. 인원은 일을 담당하는 신이니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아 점치지 않으면 안 된다”<sup>29)</sup>라고 인원이 되는 지장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 5) 천문설(天文說)

지장간 이론의 성립에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 지장간 주석서인 『명리지중장간석례(命理支中藏干釋例)』에서 북두칠성과 일전(日躔)의 천도 운행 원리를 적용하여 지장간의 생성원리를 설명한다.<sup>30)</sup>

『명리지중장간석례』에서 12지를 사맹·사계·사중으로 구분하여 각 지지에 소장된 지장간의 생성원리를 설명한다.

사맹은 양간으로 왼쪽으로 열두 자리를 행하여 생지에 접한다. 寅木은 寅에서 진일위(進一位)의 甲木과 진칠위(進七位)의 丙火, 그리고 다시 진오위(進五位)의 戊土를 소장하고, 申金은 진일위 庚金과 진칠위 壬水, 다시 진오위의 戊土를 소장하며, 巳火는 진일위 丙火와 진칠위 庚金, 다시 진오위의 戊土를 소장하고, 亥水는 진일위 壬水와 진칠위 甲木, 다시 진오위의 戊土를 소장하는데, 亥水에 戊土가 빠진 사례가 있다.<sup>31)</sup>

28) 任鐵樵 增注, 『滴天髓闡微』(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天道」. “任氏曰, 干爲天元, 支爲地元, 支中所藏爲人元, 稟命, 萬有不齊, 總不越此三元之理, 所謂萬法宗.”

29) 위의 책, 「月令」. “月令乃提綱之府, 譬之宅也. 人元爲用事之神, 宅之定向也, 不可以不卜.”

30) 최왕규, 앞의 논문, 92-99쪽을 참조하고, 교본으로 제시한 『命理支中藏干釋例』를 통하여 이 천문설을 작성하였다.

31) 『命理支中藏干釋例』, 四孟. “四孟陽干左行十二位一生接之. 寅甲進一位, 丙進七位, 戊進五位坤, 申庚一壬七戊五艮, 巳丙一庚七戊五乾, 亥壬一甲七戊五巽舊脫戊字.”

寅申巳亥 지장간의 생성원리를 그림2의 ‘하도합팔간사유십이지이십사향원도(河圖舍八千四維十二支二十四向圓圖)’를 이용하여 설명하면서, 주석에 “寅에서 한 자리 진행하면 甲이 되고, 일곱 자리를 진행하면 丙이 되며, 다시 다섯 자리를 진행하면 戊가 된다(由寅進一位爲甲, 進七位爲丙, 再進五位坤爲戊)”라고 甲·丙·戊의 자리를 상세하게 기술하



錄自清·江永《河洛精蘊》

그림2- 하도합팔간사유십이지이십사향원도<sup>32)</sup>

고, “亥宮에 戊字가 빠진 것은 마땅하지 않다(亥宮不宜少一戊字)”<sup>33)</sup>라고 지장간 이론 초기의 문헌인 『자평삼명통변연원』·『연해자평』 등에亥의 지장간에 戊가 없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사계는 음간으로 오른쪽으로 열두 자리를 행하여 묘지에 접한다. 丑土는 퇴일위(退一位)의 癸水와 퇴칠위(退七位)의 辛金, 그리고 다시 퇴오위(退五位)의 곤이 되는 己土를 소장하고, 未土는 퇴일위 丁火와 퇴칠위 乙木, 다시 퇴오위의 간이 되는 己土를 소장하며, 辰土는 퇴일위 乙木과 퇴칠위 癸水, 다시 퇴오위의 건이 되는 己土를 소장하고, 戌土는 퇴일위 辛金과 퇴칠위 丁火, 다시 퇴오위의 손이 되는 己土를 소장하는데, 辰土와 戌土에 己를 戊로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다.<sup>34)</sup>

丑未辰戌 지장간의 생성원리를 설명하면서 주석에서 “辰土와 戌土의 본기를 戌土로 작성한 것은 마땅하지 않다(辰戌不宜誤作戌)”<sup>35)</sup>라고 辰과 戌의 본기는 戌가 아니라 己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지장간 이론에서 辰土와 戌土의 본기를 戌土로 하는 것과 상치된다.

32) 최왕규, 앞의 논문, 59쪽 그림 인용.

33) 『命理支中藏干釋例』, 四孟 주석. “由寅進一位爲甲, 進七位爲丙, 再進五位坤爲戊, 餘倣此, 皆左行用陽干爲一例, 亥宮不宜少一戊字.”

34) 『命理支中藏干釋例』, 四季. “四季陰干右行十二位一墓接之, 丑癸退一位辛退七位, 己退五位坤, 未丁一乙七己五艮, 辰乙一癸七己五乾舊誤作戌, 戌辛一丁七己五巽舊誤作戌.”

35) 위의 책, 四季. “由丑退一位爲癸, 退七位爲辛, 再退五位爲坤爲己, 餘倣此. 皆右行用陰干爲一例, 辰戌不宜誤作戌.”

표5- 『명리지중장간석례』의 십이지 지장간 생성원리

지	지장간 생성원리		
子	癸進-순행		
丑	癸退一位	辛退七位	己退五位坤
寅	甲進一位	丙進七位	戊進五位坤
卯	甲退-역행, 구오작을(舊誤作乙)		
辰	乙退一位	癸退七位	己退五位乾, 舊誤作成
巳	丙進一位	庚進七位	戊進五位乾
午	丁進-순행, 구다기자(舊多己字)		
未	丁退一位	乙退七位	己退五位艮
申	庚進一位	壬進七位	戊進五位艮
酉	庚退-역행, 구오작신(舊誤作辛)		
戌	辛退一位	丁退七位	己退五位巽, 舊誤作戌
亥	壬進一位	甲進七位	戊進五位巽, 舊脫戌字

사중은 두 개의 양과 두 개의 음이 순역으로 나누어 행한다. 子水는 진일위에 순행하는 癸水를 소장하고, 午火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는 丁火를 소장하는데 己土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卯木은 퇴일위에 역행하는 甲木을 소장하는데 乙木으로 잘못 사용하였고, 酉金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庚金을 소장하는데 辛金으로 잘못 사용하였다.<sup>36)</sup>

子午卯酉 지장간의 생성원리를 설명하면서 주석에서 “子水와 午火에 소장하는 癸水와 丁火가 순행하는 이치를 보인다(子午中藏癸丁以示順行之道)”라고 子水와 午火가 양이기 때문에 순행하고, “卯木과 酉金은 음이므로 역행하는 甲木과 庚金을 소장하는 것이 마땅하며 乙木과 辛金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卯酉當逆行數甲數庚爲陰爲退不宜誤作乙辛)”라고 乙木과 酉金은 음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甲木과 庚金을 지장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현대 지장간 이론과 상치되는데, 또 “午火에 己字가 많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午不宜多己字)”<sup>37)</sup>라고 午火에 己土가 지장간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데, 이 또한 현대 지장간 이론에 배치된다. 이상 설명한 12지지의 지장간 생성원리를 도식화하면 표5와 같다.

36) 위의 책, 四仲 주석. “四仲二陰二陽分順逆, 子癸進一順行, 午丁同上舊多己字, 卯甲退一逆行舊誤作乙, 酉庚同上舊誤作辛.”

37) 위의 책, 四仲. “子午中藏癸丁以示順行之道, 卯酉當逆行數甲數庚爲陰爲退不宜誤作乙辛, 午不宜多己字.”

표6- 『명리지중장간석례』의 십이지지 지장간표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支藏干	癸	癸辛己	戊丙甲	甲	乙癸己	戊庚丙	丁	丁乙己	戊壬庚	庚	辛丁己	戊甲壬

『명리지중장간석례』의 지장간 생성원리를 십이지지 지장간표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sup>38)</sup>

우주생성과정의 ‘천경지중설’을 통한 지지의 중탁(重濁)에 의한 지장간 생성설, 십이운성법의 생·왕·묘지의 소장에 따른 지장간 생성설, 사계(辰戌丑未)에 토를 18일 배속한 토왕사계설에 의한 지장간 생성설, 삼재사상에 의하여 인원=지장간에 따른 지장간 생성설, 천문설에 따른 『명리지중장간석례』의 지장간 생성설은 모두 이론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하였다. 특히 ‘천경지중설’은 우주생성과정에서 중탁한 기로 구성된 지기(地氣)는 전일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생물(木)·온기(火)·흙(土)·광물(金)·물(水)을 소장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지장간의 생성원리로 도입하였다.

### III. 지장간의 구성원리와 시간적 효용

#### 1. 지장간의 구성원리

원수산의 『명리탐원(命理探源)』 「지장인원오행(枝藏人元五行)」에서 사맹·사중·사계에 소장된 지장간의 이치에 대하여 설명한다.

지장오행에 의하여 맹·중·계로 구별하면 그 뜻이 세 가지가 있다. 사맹은 양포태법으로 장생·임관이 의지하여 임하는 곳으로, 寅木은 丙火와 戊土를 장생으로 하고 甲木을 임관으로 삼으니, 그래서 甲·丙·戊가 寅木에 거한다. 巳火는 庚金の 장생이 되고 丙火와 戊土의 임관지가 되어 丙·庚·戊가 巳火에 거한다. 申金은 戊土와 壬水의 장생이 되고 庚金の 임관지가 되어 庚·壬·戊가 申金에 거한다. 亥水는 甲木의 장생이고 壬水의 임관지가 되어 壬·甲이 亥水에 거한다. 사중은 음포태법으로 관이 임하는 곳으로, 子水는 癸가 임관하여 癸水가 子水에 거하고, 卯木은 乙木이

38) 최왕규, 앞의 논문, 92-99쪽 참조.

임관하여 乙木이 卯木에 거하며, 午火는 丁火·己土가 임관하여 丁火·己土가 午火에 거하고, 酉金은 辛金에서 임관하여 辛金이 酉金에 거한다. 사계는 양·음포태법으로 관대와 묘궁에 임하는 것으로, 丑土는 癸水가 음포태법으로 관대가 되고 양포태법으로 金의 묘지가 되며, 또 음포태법으로 己土의 묘지가 되어 癸[음포태법으로 관대·취양포태법으로 묘궁·己음포태법으로 묘궁]가 丑土에 거한다. 辰土는 乙木과 戊土의 관대가 되고 水의 묘지여서 乙[음포태로 대궁·戊[양포태로 대궁·癸[양포태로 묘궁]가 辰土에 거한다. 未土는 丁火와 己土의 관대이고 木의 묘지가 되어 己·乙·丁이 未土에 거한다. 戌土는 辛金의 관대이고 火의 묘지이며 戊土의 묘지이므로 辛·丁·戌가 戌土에 거한다.<sup>39)</sup>

원수산이 설명한 장생·임관 또는 관대·묘지는 음양 순역으로 나는 십간 주행을 12운성법 이론으로 분석하여 논한 것이다. 그중에 申이 戊·壬의 장생이 된다는 것은 申이 壬의 장생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申은 戊의 병지(病地)에 속하는데 어찌 장생이 되는가? 또 사맹 중 亥支에 戊土가 소장되지 않은 것은 土의 주류(周流)를 '화토동궁설'에 따라 해석했기 때문이다.

사맹 寅·申·巳·亥는 십이운성법에서 木·火·金·水의 관지(官地)에 임하여 각기 본기의 세력이 왕한 때에 속하고 양간(陽干)의 대표가 되어 寅 중에는 甲木이, 申 중에는 庚金이, 巳 중에는 丙火가, 亥 중에는 壬水가 소장되어 있다. 다시 이 사지(四支)에는 사행(四行)의 장생을 양간으로 소장하고 있어서 寅은 火의 장생이 되어 丙火를 소장하고, 申은 水의 장생이 되어 壬水를 소장하며, 巳는 金의 장생이 되어 庚金을 소장하고, 亥는 木의 장생이 되어 甲木을 소장한다. 그리고 戊土가 소장된 것은 土의 성질이 木·火·金·水의 전일함에 비하여 각 기가 섞여 있어 사행이 순번을 교체할 시에 土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토기가 소장되고, 맹지 양간 사이에 설정되어 양토(陽土) 戌가 되며,

39) 袁樹珊, 『命理探源』(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枝藏人元五行」. “按枝藏之五行, 以孟·仲·季區別之, 其意有三. 四孟者, 乃陽幹長生·臨官·寄臨之所也. 寅爲丙·戊之長生, 又爲甲之臨官, 故丙火·戊土·甲木寓焉. 巳爲庚之長生, 又爲丙·戊之臨官, 故庚金·丙火·戊土寓焉. 申爲戊·壬之長生, 又爲庚之臨官, 故戊土·壬水·庚金寓焉. 亥爲甲之長生, 又爲壬之臨官, 故甲木·壬水寓焉. 四仲者, 乃陰幹臨官寄臨之所也. 子爲癸之臨官, 故癸水寓焉. 卯爲乙之臨官, 故乙木寓焉. 午爲丁·己之臨官, 故丁火·己土寓焉. 酉爲辛之臨官, 故辛金寓焉. 四季者, 乃陰幹·陽幹·冠帶·墓·寄臨之所也. 丑爲癸之冠帶, 金之墓, 又爲己之墓, 故癸水·辛金·己土寓焉. 辰爲乙戊之冠帶, 又爲水之墓, 故乙木·戊土·季水寓焉. 未爲丁·己之冠帶, 又爲木之墓, 故丁火·己土·乙木寓焉. 戌爲辛之冠帶·火之墓, 又爲戊土之墓, 故辛金·丁火·戊土寓焉.”

이 때문에 寅·申·巳 모두 戊土를 소장한다. 이 중 오로지 亥水 속에는 戊土가 소장되지 않는데, 이는 土가 水에 이르면 사절지(死絶地)가 되어 무기(無氣)하여 亥 중에 소장된 戊土는 열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0)</sup>

『연해자평』 「우지지장둔가」에서도 맹지에는 모두 戊土를 소장하는데 “亥支는 壬水와 甲木만 소장한다(亥藏壬甲是真蹤)”라고 하며, 亥支는 水氣로서 火·土의 절지가 되어 戊土를 소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해자평』 「월률분야지도」에서는 亥월에 戊土가 30일 중 7일을 용사(用事)(戊: 7, 甲: 5, 壬: 18)한다고 하였다.

사중지(四仲地)의 지장간이 모두 음기로 구성된 것은 왕(旺)하면 쇠(衰)하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원리이다. 子·午·卯·酉는 사정(四正)이 되어 음양 소장(消長)의 네 개의 관건이 되는 절점으로 水·火·木·金の 왕지(旺地)가 되어 세력이 극히 왕성하니, 왕성함이 극에 달하면 마침내 쇠되하여 그 소장된 것은 마땅히 음간(陰干)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子水에 癸가, 午火에 丁이, 卯木에 乙이, 酉金에 辛이 소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午火에는 다른 己土도 소장하고 있는데 ‘화토동궁’설에 따라 ‘자식은 모의 왕한 기를 따른다(子從母旺)’는 기존의 관념에서 인출된 것이다. 子·午·卯·酉 중에 癸·丁[己]·乙·辛이 지장간으로 소장된 것은 왕성함이 다하여 쇠해지기 때문에 음간이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해자평』 「우지지장둔가」에서 왕지(旺支)는 모두 순수한 정기만 소장하는데, 午火는 다른 왕지와 다르게 “오궁에는 정화와 함께 기토를 소장한다(午宮丁火并己土)”라고 하였는데, 장신지도 「子平學之理論研究」에서 “子·午·卯·酉 중에서 오직 午支만 ‘화토동궁설’로 인하여 두 개의 지지를 소장한다(子·午·卯·酉四正中, 惟有午支因‘火土同宮’, 故藏二支)”라고 하였다.

사고지(四庫地) 辰·戌·丑·未 사계월(四季月)은 土가 월령을 잡아 土의 본기가 소재되어 있는데, 辰·戌土는 순서의 숫자가 홀수여서 양토인 戊土가 배속되고, 丑·未土는 순서의 숫자가 짝수여서 음토인 己土가 설정된다. 그리고 辰·戌·丑·未는 다른 사행 木·火·金·水의 ‘묘고’나 ‘여기’가 되어 기가 쇠하게 되니 소장되는 지장간이 음간이 되었다(乙辛·丁乙·辛丁·癸辛).

40) 張新智, 앞의 논문, 84쪽.

辰土는 木의 ‘여기’가 되고 아울러 水의 ‘묘고’가 되어 乙木과 癸水를 소장하고, 戌土는 金의 ‘여기’가 되고 아울러 火의 ‘묘고’가 되어 辛金과 丁火를 소장하며, 丑土는 水의 ‘여기’가 되고 아울러 金의 ‘묘고’가 되어 癸水와 辛金을 소장하고, 未土는 火의 ‘여기’가 되고 아울러 木의 ‘묘고’가 되어 丁火와 乙木을 소장한다.<sup>41)</sup>

지지에 장간을 배합하는 법칙은 전월의 지지오행과 동일한 오행의 천간을 배치하여 ‘여기’라고 하는데, 즉 전월의 여분이 되는 기이다. ‘중기’는 삼합화국(三合化局)의 오행에 해당하는 천간을 배치한 것이며, 마지막 ‘정기’는 지지의 오행과 동행(同行)의 천간을 배치하는 것이다.<sup>42)</sup>

종합하면 亥支에 戊土가 배정되지 못하는 것은 ‘화토동궁설’에 의해 절지가 되기 때문이며, 申支에 戊土가 배정되는 것은 ‘수토동궁설’에 따라 生地에 해당되기 때문이란 것은 건강부회가 될 것이다. 사맹지(四孟地)에서 戊土가 여러 가지 이유[화토동궁설·절지 등]로 亥支에 소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시(四時)의 중개와 환절기 역할로 마땅히 필요하여 현대 지장간 이론에는 사맹지 모두에 소장되어 전월의 ‘여기’로 사용되고, 사맹지의 ‘중기’는 차기(次期) 계절의 양간으로 구성되어 그 양간의 장생지가 되며, 사맹지의 ‘본기[정기]’는 해당 계절의 양간이 된다.

사중지(四仲地)의 卯·酉·子는 본기로만 구성되는데 午는 ‘화토동궁설’을 적용하여 丁·己를 소장한다.

사고지(四庫地)는 전 계절의 고지(庫地)가 되어 전 계절의 오행, 해당 계절의 ‘여기’가 되어 당 계절의 오행, 사계의 ‘본기’를 소장한다. 전 계절과 해당 계절의 오행은 음간을 사용한다.

십이지의 지장간을 배열하면 寅은 丙·戊의 장생지[화토동궁설], 甲의 녹지(祿地)가 되고, 卯는 乙의 왕지와 녹지[음생양사설]가 되며, 辰은 乙[木]의 여기[묘지], 癸[水]의 묘지[고지], 戊의 본개[토왕사계설]가 되고, 巳는 丙·戊의 녹지[화토동궁설], 庚의 장생지가 되며, 午는 己[土]·丁[火]의 왕지[화토동궁설·음양동생동사설]와 녹지[화토동궁설·음생양사설]가 되고, 未는 丁[火]의 여기[쇠지], 乙[木]의 묘지[고지], 己의 본개[토왕사계설]가 되며, 申은 戊[계절중개작용], 壬의 장생지, 庚의 녹지가 되고, 酉는 辛[金]의 왕지와 녹지[음생양사설]가 되며, 戌은 辛[金]의 여기[쇠지], 丁[火]의 묘지[고]

41) 위의 논문, 83-85쪽 참조.

42) 阿部熹作 著, 鄭民鉉 譯, 『四柱推命學 滴天髓秘解(中)』(삼원출판사, 1998), 40쪽.

표7-십이지지 지장간 구성원리표

지지	여기	중기	본기	비 고
寅	戊	丙[장생지]	甲[祿地]	
卯	乙[旺地]			
辰	乙[衰地]	癸[墓地]	戊	토왕사계설
巳	戊	庚[장생지]	丙[녹지]	
午	己·丁[왕지]			화토동궁설
未	丁[쇠지]	乙[묘지]	己	토왕사계설
申	戊	壬[장생지]	庚[녹지]	
酉	辛[왕지]			
戌	辛[쇠지]	丁[묘지]	戊	토왕사계설
亥	戊	甲[장생지]	壬[녹지]	
子	癸[왕지]			
丑	癸[쇠지]	辛[묘지]	己	토왕사계설

지), 戌의 본가[토왕사계설]가 되고, 亥는 戊[계절중개작용], 甲의 장생지, 壬의 녹지가 되며, 子是 癸[水]의 왕지와 녹지[음생양사설]가 되고, 丑은 癸[水]의 여기[쇠지], 辛[金]의 묘지[고지], 己의 본가[토왕사계설]가 된다.

사행지의 戊土가 '화토동궁설'을 따르면 寅은 장생지가 되고 巳는 녹지가 되기도 하지만, 寅·巳·申·亥 모두 계절의 전환점에 위치하여 계절을 중개하기 위한 역할로 필요하였고, 더욱이 寅과 申은 金·水임과 木·火 양의 음양의 환기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戊土의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위 십이지 지장간의 배열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 2. 지장간의 시간적 효용

지장간이란 지지에 암장된 천간을 말하는데 월지의 지장간을 월률분야라 하고, 월지 외의 지장간은 인원용사라 한다. 십이지 모두가 월률분야나 인원용사가 될 수 있고, 지장간의 오행 배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을 주관하여 용사한다. 지장간 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행의 변화를 가져오며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연속을 표기한 것으로 십이지장간의 배정일수를 합하면 1년이 되고, 또 십이지장간이 차서에 따라 월지를 12회 운행하면 1년이 되어 그 효용에 따라 각종 변화를 가져온다.

1년은 지구의 공전 주기에 의하면 365일이 되고<sup>43)</sup>, 지장간에 배속된

43) 강성인, 앞의 논문(2015), 159쪽 각주 27 인용. "1년은 회기년에 의하면 365,2422일이 고, 황성년에 의하면 365,2564일이며, 근점년에 의하면 365,2596일이 된다."

오행의 일수를 모두 합하면 1년이 되는데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sup>44)</sup>

지장간에 배속된 오행일수를 합산하면 토가 다른 오행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110여 일을 관장하는데 이는 토의 중재작용으로 4계절(季節)·12월(月)·36순(旬)·72후(候)·365일(日)을 잘 조화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지장간을 육합(六合)으로 계산하면 丁壬合木이 6곳, 乙庚合金이 6곳, 甲己合土가 6곳, 丙辛合水가 6곳, 戊癸合火가 18곳, 총 42곳<sup>45)</sup>에서 합이 발생하여 合火가 가장 많은데, 이는 지장간 배정에서 戊土가 중재작용으로 많이 배정되어 戊와 癸가 합하는 경우의 수가 많고, 또 지장간의 오행 배속에서 화에 배정된 일수가 가장 적은 것[토: 110여 일, 목·수·금: 65일 전후, 화: 60일 이하<sup>46)</sup>]에 대한 보완작용이라고 생각된다.

사주의 유형이 지장간을 적용하면 종류가 더욱 다양해진다. 사주의 연주(年柱)·월주(月柱)·일주(日柱)·시주(時柱)를 기준으로 유형을 계산하면  $60 \times 12 \times 60 \times 12 = 518,400$ 종류의 사주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사주 소지자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기에서 사주의 한계성을 토로하게 되는데, 지장간의 사령을 알면 사주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된다.

사주팔자 중에 한난조습(寒暖燥濕)을 관장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지지는 월지와 시지이다. 예를 들어 子月은 추운 겨울이며, 子時는 깜깜한 밤 12시 전후가 되어 시간적인 상황을 알려준다. 월지의 지장간이 사령하는 오행이 대개 세 종류이고, 시지를 사령하는 지장간의 오행도 세 종류이다. 세 종류의 오행이 각자 다른데 어찌 사주 전체의 수가 51만 8,400종류라고 하여 대한민국에만 같은 사주가 100여 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

월지의 지장간과 시지의 지장간을 적용하면 대체적으로  $518,400 \times 3$ 월

44) 위의 논문, 159쪽 각주 28 참조, 지장간의 오행 배정 비율은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다. 몇 문헌의 자료에서 12지지 지장간의 사령 일수를 총합산하여 각 오행의 비율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각 문헌의 일(日) 이하의 분(分)은 시간으로 계산].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卷一, 五行發用定例, 月律分野之圖. “총: 365.29 목: 64, 화: 55.8, 토: 112.5, 금: 69, 수: 64”; 韋千里 編著, 『精選命理約言』(台北: 瑞成書局, 2013), 「看月令法二」. “총: 365, 목: 66, 화: 56.8, 토: 110.6, 금: 65.7, 수: 65.9”; 이석영, 『四柱捷徑』, 한국역학교육학원(2008), 144쪽. “총: 365.3, 목: 65.8, 화: 56.5, 토: 111.4, 금: 65.9, 수: 65.7.”; 김상연, 『컴퓨터萬歲曆』(갑을당, 1995), 319쪽. “총 365.3, 목: 65.8, 화: 56.5, 토: 111.4, 금: 65.9, 수: 65.7.”

45) 이 글 표7 참조.

46) 각주 44 참조.

지장간=1,555,200이 되고, 또 1,555,200×3[시지장간]=4,665,600의 종류가 되며, 여기에 남녀[대운에서 남녀 분별]를 구분하고, 야자시(夜子時)와 정자시(正子時)<sup>47)</sup>를 적용하면 더욱 다양한 모식이 만들어져 같은 사주가 거의 없게 된다. 이는 간명법에서 지장간의 시간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천수천미』 「생시(生時)」에서 “자시에 태어난 사람은 앞의 삼각삼분(三刻三分)<sup>48)</sup>은 壬水가 일을 주관하고, 뒤의 사각칠분(四刻七分)은 癸水가 일을 주관한다(子時生人, 前三刻三分壬水用事, 後四刻七分癸水用事)”라고 時의 인원용사에도 지장간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삼각삼분은 49.5분(4각(刻)=15분, 1시(時)=2소시(小時)=8각)이 되고, 사각칠분은 70.5분이 되어, 子時는 壬水와 癸水가 용사하는 시간을 합하면 120분이 된다. 이렇게 시에도 지장간을 적용하면 사주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사령하는 시점에 따라 길흉이 달라진다.

『적천수천미』 「생시」 원문에서 “인원은 용사하는 신으로서 묘의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으니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人元爲用事之神, 墓之定方也, 不可以不辨)”라고 인원, 즉 지장간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같은 글 주석에서 임철초는 시에도 지장간의 사령에 따라 효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생시의 용사는 월령의 사령과 서로 부합하니 이것이 일주의 희신이 된다면 흥하고 융성하는 것이 배가 되고, 이것이 일주의 기신이 된다면 반드시 흥과 재앙이 많아진다. 생시의 좋고 나쁜 것을 비유하자면 분묘의 혈도와 같고, 인원의 용사는 마치 분묘의 조향과 같으니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혈은 길한데 향이 흉하면 반드시 그 길이 감소하고, 혈은 흉한데 향이 길하다면 그 흥은 반감된다.<sup>49)</sup>

47) 子時에서 夜半前 上半時[밤 11-12시]는 야자시라 하고, 夜半後 下半時[오전 1-2시]는 정자시라 한다(袁樹珊 著, 앞의 책, 「論時刻及夜子時與子時正不同」, “若子時, 則上半時在夜半前, 屬昨日, 下半時在夜半後, 屬今日.” 참조).

48) 刻과 分: 刻은 15분, 大刻은 10刻, 分은 1.5분(刻의 1/10)이다. 계산하면 3각3분은 49.5분이고 4각7분은 70.5분(4각=60분)+(7분=10.5분)이 된다. 49.5분과 70.5분을 더하면 120분으로 1시간이 된다. 壬이 49.5분을 주관하고(야자시), 癸가 70.5분을 주관한다(조자시).

49) 任鐵樵 增注, 앞의 책, 「生時」. “如生時用事, 與月令人元用事相附, 是日主之所喜者, 加倍興隆, 是日主之所忌者, 必增凶禍. 生時之美惡, 譬墳墓之穴道, 人元之用事, 如墳墓之朝向, 不可以不辨. 故穴吉向凶, 必減其吉, 穴凶向吉, 必減其凶.”

좋은 시(時)를 얻는 것은 분묘의 좋은 혈(血)을 얻는 것과 같고, 시의 인원용사, 즉 지장간의 사령을 잘 얻는 것은 분묘의 좋은 향(向)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한다. 생시(生時)는 곧 돌아가서 쉬는 곳이니 비유하면 묘지와 같다.

매일 매시마다 지장간의 사령을 받는데 진월생(辰月生)이라면 출생시점이 청명절(淸明節)을 지나 9일 내에는 乙木이 주관하고, 10일에서 12일 사이에는 癸水가 주관하며, 13일에서 30일까지는 戊土가 주관한다. 지장간은 매일 매시간 적용된다. 지장간의 합계는 1년의 일수와 같아서 월지에 대입하면 매일이 되고 시지에 대입하면 매 순간이 되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장간의 영향을 받고 산다. 우리의 삶에 지장간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는 항상 지장간의 변화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지장간의 시간적 효용에 따라 심성과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길흉화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회남자』에서 “맑고 밝은 기는 얇게 퍼져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는 응고되어 땅이 되었다(淸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凝滯而爲地)”라는 우주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천경지중설’에서 지장간 이론의 발단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천착을 통하여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으로 천지생성과정의 ‘천경지중설’을 새롭게 만들어 채택하고, 십이운성법에 따른 지장간 이론생성설, 토왕사계설에 의한 지장간 생성설, 삼재사상에 의한 지장간 생성설, 『명리지중장간석례』를 통한 천문설에 따른 지장간 생성설을 알아보았다.

지장간 이론의 문헌적인 형성과정으로는 『옥조신용진경』에 지장간에 대한 기록이 처음 발견되지만 위서의 논란이 있어, 서자평이 주석한 『낙록자삼명소식부주』가 지장간 이론이 수록된 최초의 문헌이 되고, 이어 서대승의 『자평삼명통변연원』과 서승의 『연해자평』에서 지장간 이론이 보완되었다. 지장간 이론은 신법사주에서 삼재사상의 인원이 되어 고법사주의 납음을 대신하였다.

지장간 이론의 구성원리에서 사맹 寅·巳·申·亥는 모두 여기가 되는 戊土[사시중개, 특히 寅·申의 戊는 음양을 중개하는 기능]와, 중기가 되는 차기 계절의 양간과 본기가 되는 해당 계절의 양간을 소장하고, 사중에서는 卯·酉·子是 본기인 정기로만 구성되나, 午는 '화토동궁설'을 적용하여 丁·己를 소장하며, 사계 辰·未·戌·丑은 여기가 되는 해당 계절의 음간과 중기가 되는 전 계절의 음간, 그리고 본기를 소장한다.

일부 문헌에서 亥支에 戊土가 배정되지 못하는 것은 '화토동궁설'에 의해 절지가 되기 때문이며, 申支에 戊土가 배정되는 것은 '수토동궁설'에 따라 생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申과 亥의 지장간에 戊土가 배정되어야 하는 것은 순수한 토의 중재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午火에 己土가 소장된 것은 토의 주류를 '화토동궁설'로 보아 화의 왕지에 배정된 것이다.

지장간에 배속된 오행의 배정일수에서 土가 가장 많이 배정된 것[110일 이상]은 土의 중재작용으로 4계절·12월·36순·72후·365일을 잘 조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되고, 지장간을 지지육합으로 계산하면 戊癸合火가 丁壬合木·乙庚合金·甲己合土·丙辛合水보다 많은데, 이는 지장간 배정에서 중재작용으로 戊土가 많이 배정되어 戊와 癸가 합치는 곳이 많기 때문이며, 지장간에 배정된 火의 일수가 가장 적은 것[60일 이하]에 대한 보완작용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지장간의 구성원리를 시간적 효용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지장간의 영향을 받아 매 순간 인정(人情)과 인사(人事)에 변화를 가져오고, 시시각각 길흉화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한 지장간의 이론적 배경으로 새롭게 도입한 '천경지중설'과 제 지장간 생성설, 중재와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 지장간의 구성원리, 선행연구가 전혀 없었던 지장간의 시간적 효용 등이 머리말에서 지지의 지장간을 벽돌의 모래·시멘트·물에 비유하면서 기술한 육하원칙에 의한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주고, 명리학적 삼재사상과 음양오행론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어 심도 있는 후속연구에 일조할 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珞珠子三命消息賦註』, 『命理支中藏干釋例』, 『明通賦』, 『白虎通』, 『五行大義』, 『玉照神應眞經』, 『子平三命通變淵源』, 『淮南子』.

### 2. 논저

강성인,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제58집, 2015, 157-159쪽.

강성인·김만태, 「음양오행론에서 『淮南子』와 『五行大義』의 위상과 상이점」. 『동양학』 제62집, 2016, 165-166쪽.

김광운, 『자운의 지장간 이야기』, 자운명리출판사, 2014.

김만태, 「십이지의 상호작용 관계로서 衝·刑에 관한 근원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6권 제3호, 2013, 140쪽.

\_\_\_\_\_, 「사시·월령의 명리학적 수용에 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3호, 2014, 106쪽.

김상연, 『컴퓨터萬歲曆』. 갑을당, 1995, 319쪽.

김승동 편저, 『易思想辭典』.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신경수, 「당송대 명리학 三才論과 주체 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01-107쪽.

안재옥, 『명리학에 함축된 음양오행론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42-46쪽.

소재학, 『오행과 십간십이지 이론 성립에 관한 연구』.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16-129쪽.

이명재,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 『중국학연구』 66집, 2013, 377쪽.

이석영, 『四柱捷徑』. 한국역학교육학원, 2008, 144쪽.

신경수, 「唐·宋代 命理的 三才論과 주체관념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2쪽.

주안나, 「지장간 이론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최양규, 「지장간 이론의 연원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4쪽, 92-99쪽.

홍유선, 「십이지의 지장간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阿部熹作 著, 鄭民鉉 譯, 『四柱推命學 滴天髓秘解(中)』. 삼원출판사, 1998.

萬民英 著,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班固 著,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 徐子平 撰,『珞珠子三命消息賦注』.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 韋千里 編著,『精選命理約言』. 台北: 瑞成書局, 2013.
- 陸致極,『中國命理學史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8.
- 李虛中 注,『李虛中命書』.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 任鐵樵 增注,『滴天髓闡微』.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袁樹珊,『命理探源』.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張楠,『標點命理正宗』.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1.
- 張新智,『子平學之理論研究』. 國立政治大學 박사학위논문, 2002, 83-85쪽.
- 鄒文耀 撰,『命學尋眞』. 台北: 集文書局, 1982.

## 국 문 초 록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층사상인 삼재사상은 천·지·인으로 구성되어 하늘을 천, 땅을 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인으로 나타내며, 명리적 삼원론(三元論)은 천원(天元)·지원(地元)·인원(人元)으로 구성되어, 삼원 중 인원을 지장간이라 한다.

지장간 구성원리의 이론적 배경으로 우주생성과정에서의 ‘천경지중설(天輕地重說)’을 신설하여 도입하고, ‘십이운성법설’·‘토왕사계설’·‘삼재론설’·‘천문설’로 유형화하여 기술하였는데, 특히 ‘천경지중설’은 우주생성과정에서 중탁한 기로 구성된 지기(地氣)는 전일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생물(木)·온기(火)·흙(土)·광물(金)·물(水)을 소장하는데, 이러한 이치를 지장간의 생성원리로 채택하였다.

일부 문헌에서 지장간의 구성원리로 설명한 亥支에 戌土가 배정되지 못하는 것은 ‘화토동궁설’에 의해 절지가 되기 때문이며, 申支에 戌土가 배정되는 것은 ‘수토동궁설’에 따라 생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건강부회로 보고, 申과 亥의 지장간에 戌土를 배정하는 것은 토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맹지에서 戌土는 전월의 여기로 사용되고, 중기는 다음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의 양간으로 구성되어 그 양간의 장생지가 되며, 정기는 본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의 양간이 된다. 사중지의 卯·酉·子是 본기의 음간으로 구성되고, 午는 ‘화토동궁설’을 적용하여 丁·己를 소장한다. 사고지는 전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의 고지(庫地)가 되어, 전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 음간과 해당 계절에 해당하는 오행 음간, 그리고 사계토의 본기를 소장한다.

지장간에 배속된 오행 중 土가 가장 많은 것은 중재를 위한 것이고, 지장간을 지지육합으로 계산하면 火가 가장 많은데, 이는 지장간에 배정된 火가 가장 적은 것에 대한 보완작용이라 생각한다.

**투고일** 2016. 9. 20.

**심사일** 2016. 11. 1.

**게재 확정일** 2016. 11. 14.

**주제어(keyword)** 삼재사상(三才思想, the theory of Samjae), 삼원론(三元論, the theory of Samwon), 지장간(支藏干, Jijanggan), 천간(天干, Cheongan), 지지(地支, Jiji), 여기(Yeogi), 중기(Junggi), 정기(Jeonggi)

## Abstracts

### A Study on Inwon(人元) in the Heaven-Earth-Human Theory of Samjae(三才思想): With a Focus on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Jijanggan

Kang, Sung-in

The theory of Samjae, the foundational idea of East Asian culture, consists of heaven, earth and human and expresses heaven as Cheon, earth as Ji, and human, the lord of creation, as In. The theory of Myeongrihak Samwon(三元論) is composed of Cheonwon(天元), Jiwon(地元) and Inwon(人元), and Inwon among Samwon is called Jijanggan.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mposition principle of Jijanggan, 'the theory of Cheongyeongijung(天輕地重說)'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universe was introduced, and described in the categories of 'the theory of Sipeeunseongbeop', 'the theory of Towangsagye', 'the theory of Samjae' and 'the theory of Cheonmun.' In particular, in 'the theory of Cheongyeongijung', Jigi(地氣) consisting of heavy and thick Gi in the process of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is not uniform, but includes different kinds of creatures[木], warmth[火], soil[土], minerals[金] and water[水], and this principle was adopted as the formation principle of Jijanggan. The reason why Muto(戊土) cannot be allocated to Haeji(亥支) which was explained as the composition principle in some documents is that it becomes Jeolji(絕地) according to 'the theory of Hwatodonggung', the logic that Muto is allocated to Sinji(申支)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theory of Sutodonggung' was considered as a farfetched view, and the reason for the allotment of Muto to the Jijanggan of Sin(申) and Hae(亥) was seen to lie in the necessity for the mediating role of To. In Samaengji(四孟地), Muto is used as the Yeogi(餘氣) of the previous month, Junggi(中氣) is made up of Yanggan(陽干) of the Five Elements applied to the next season and becomes Jangsaengji(長生地) of the Yanggan, and Bongi[Jeonggi(正氣)] becomes Yanggan of the Five Elements coming under the present season, Myo(卯), Yu(酉) and Ja(子) of Sajungji(四仲地) is composed of Eumgan of Bongi, and Oh(午) applies the theory of Hwatodonggung and possesses Jeong(丁) and Gi(己). Sagoji(四庫地) becomes Goji(庫地) of the Five Elements of all the seasons, and possesses Eumgan of the Five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whole seasons, that of the relevant season and Bongi of Sagyeto(四季土). It is for arbitration that soil(土) exists most among the Five Elements assigned to Jijanggan. When Jijanggan is calculated as Jijiyukhap(地支六合), fire(火) exists most, and it seems like supplementation to the fact that fire(火) assigned to Jijanggan is least.